

광주, 글로벌 인공지능 융복합 중심 도시 도약한다

1단계 국내 대표 집적단지 조성
2단계 전국화·세계화 계획 수립
핵심기업 육성·글로벌 경쟁력 등
2025년부터 3대 핵심전략 추진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광주시 첨단 3지구 내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감도.

도전 3년만에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지정받은 광주시가 2단계 사업으로 '세계 대표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계획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은 "오는 2024년 마무리되는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2020-2024년) 성과를 계승하고, 글로벌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국화·세계화 전략 등을 담은 2단계 사업(2025-2029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와 AICA는 특히 최근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발표에 힘입어 2단계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핵심 이슈 파악 및 전략 도출을 위한 실무 위원회, 세부 전략 과제 내용 검토를 위한 분과별 워킹그룹 등을 운영해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단계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 고도화 3대 전략으로 산업 기반 조성 및 핵심 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마련하고, 관련 전략을 엄격히

이드 하고 있다. 2단계 전략 중 핵심인 산업 기반 조성은 어느 지역에서도 누구라도 쉽게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초대 규모(Hyper Scale) AI 개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 국가 데이터 탠 구축 성과물인 대규모 데이터 집적·연계와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제공해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윈스톱 개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기업 육성은 광주 5대 대표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 인공지능 실증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업을 육

성해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범도시'로 만드는 전략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광주를 '글로벌 인공지능 융복합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 규제 개선 및 AI 보안인증 등을 지원해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확장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도 연구 기능 등을 더해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전문기관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사관학교 확대 추진, 스타트업 맞춤형 인큐베이션, 기업·인재 유치 강화, 해외 기업·연구자와의 공동연구·사업 등 글로벌 역량 제고, 투자기업 대상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패키

지 지원의 내용 등이 담겨있다.

광주시는 현재 1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및 실증장비 등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 인공지능 창업펀드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및 실증 기반을 구축 중이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분석 및 실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장비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엔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거점이 될 국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가 광주 첨단 3지구 내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시는 또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실무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는 인공지능사관학교를 비롯한 AI+X 융합교육 과정 등도 광주 4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배낭 하나만 메고 오더라도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창업캠프' 1·2호점과 '인공지능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 지원·운영 중이며, 개장과 동시에 입주 완료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손정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가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1단계 조성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도 철저히,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주정차단속 CCTV 재난·범죄감시용 활용



김종호(왼쪽)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최근 영주초등학교 주정차단속 CCTV 설치현장을 방문해 비상 호출벨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 TV 영상 정보가 범죄 감시에도 활용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 337곳에서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054대를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 재난과 범죄 예방 등에도 활용한다.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도 기존 7726대에서 8780대로 늘어나게 된다. 광주시는 같은 곳에 방범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각각 설치하는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려고 지난해 8월 5개 자치구, LG유플러스, 이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복으로 설치된 CCTV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통합관제센터는 2013년 5월 개소했으며 89명 관제요원이 5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관제를 통해 4498건 사건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고, 697건 법인 검거를 도왔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연계사업으로 시민안전을 지키는 CCTV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맞춤형 교통 대책...사망자 수 확 줄었다

광주 올 교통사고 사망자 36명

작년보다 30% 감소

안전속도 5030 시행 등 성과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30.8%)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망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교통사고 발생은 6천 72건으로 365건 감소했으며 고령자 사고(841건), 어린이 사고(298건)도 지난해보다 각각 12건, 7건 줄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보행 안전 혁신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라는 대표 구호를 선정하고, '보행안전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행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

했고, 교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사고줄이기 협업팀'도 매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방안,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교통 단속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등 광주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차로와 횡단보도 조정, 교차로 전방 교통신호기 설치 등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호구역 내 압착색 포장, 사·중점노면표시, 노란신호등, 대각선횡단보도, 발광형사·중점표지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신호 위반 예방과 차량속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과속단속 CCTV와 초등학교 후문까지 노란신호등 확대 설치하는 등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인전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연말연시 대비 읍주운전 근절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등에 맞춰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우선 배려 등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사랑의 빵 나눔'



광주환경공단 직원들은 최근 손수 만든 빵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문체부 여가친화기관 인증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2021 여가친화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여가친화기관' 인증은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를 균형있게 누릴 수 있도록 여가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이번 인증기관 평가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 효과를 내고, 맞춤형 복지제도,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업무 의욕 향상과 충분한 휴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피쉬데이(주)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라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선손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